

오바마의 연중행사와 음식

오바마의 음식은 일 년 내내 지역인들의 모임과 특별한 행사 등에서 큰 역할을 해냅니다. 건강 유지라는 본질적인 기능 외에도 축복을 베풀어주는 자연에 감사하는 의식적인 역할을 하며, 나아가 사람들 간의 교류를 심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모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땅이나 바다와의 연결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바마에는 지역과 그 토지의 음식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몇몇 행사가 있습니다.

음력 1월 16 일에는 가모신사에서 ‘오이케모노’라 불리는 점술 의식이 거행됩니다. 씨앗, 뿌리채소, 과일 등 7 종류의 음식을 나무상자에 넣고 얇은 떡으로 밀폐해서 땅속에 묻습니다. 1년 후에 상자를 파내서 내용물을 보고 그 해의 풍작을 점칩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의식은 2007년에 무형민속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매년 7월에 히로미네 신사에서 행해지는 기온마쓰리는 무병식재와 역병 퇴산을 기원하는 교토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정교하게 장식된 신여를 끌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가마꾼들은 힘을 내기 위해 ‘가와라마메(대두, 미역, 여뀌잎 요리)’를 먹습니다. ‘고쿠(줄잎으로 쌀 밥)’는 악령과 질병을 쫓기 위해 신사에 바친 후에 먹습니다.

8월에는 조상을 애도하기 위한 오본 행사가 있습니다. 고인에게 바치는 공물로 다양한 음식과 단고 떡을 준비합니다. 와카사만 주변의 해안가 마을에서는 형형색색의 배에 공물을 싣고 바다에 띄웁니다.

신사의 신도들은 여름이 끝날 무렵 모여서 ‘사카고토(酒事)’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 무사히 수확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성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재수가 좋다고 여겨지는 말린 오징어와 다시마로 만든 안주를 먹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지역 신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그 해의 수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어구이나 벼 이삭 등의 공물을 신들에게 바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한 풋콩과 무청, 고구마 등 전통적인 음식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11월에서 2월에 걸쳐서는 시내 각지에서 산의 신에게 감사하는 ‘야마노쿠치코’가 행해지는데, 특별한 공물을 산의 여신과 그녀의 32명의 아이들에게 바칩니다. 공물을 바치는 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단고 떡과 굴이 포함됩니다. 공물로 바치는 단고 떡은 찢쌀이 아닌 쌀가루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술을 넣어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